

## 大學의 발전과 專攻學科의 統合化

許 炯  
(中央大 教育學科)

대학의 발전을 논함에 있어서 대학 그 자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專攻學科(department, major)의 位相과 그 學科가 개설하고 있는 敎科課程에 관하여 論議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각 대학(undergraduate)에 신설되고 있는 '學科'들이 그 명칭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요사이 대학 사회 일각에서는 專攻學科의 '統合' 對 '分化'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의 학부에서 專攻學科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조직할 것이냐 또는 '분화' 내지는 '세분'이라는 차원에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 행정이나 문교부의 전공 학과 개설 허가에 관한 정책이 이에 관한 연구와 논의의 과정 없이 새로운 전공 학과들이 신

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대학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대학의 학부에 관한한, 전공 학과의 분화나 세분보다는 '統合'이라는 측면에서 學科를 조직하는 것이 학문의 발전이나 학생의 진로 및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論議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本稿에서 찬성하는 統合論은 지금까지의 기존 학문 체계로 구분된 學科들을 인문·사회·법정·경상·의약 계열 등으로 확대하여 통합하자는 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전공 학과를 대학원의 특수 전공 영역처럼 더 이상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대학내에 법학과, 사법학과, 공법학과로 세분된다든가 또는 축산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가공학과, 사료생산학과, 낙농학과 등으로 분화된다든가 또는 임학과, 삼림경영학과,

임산가공학과, 제지공학과 등으로 세분된다든가 또 미술대학에 종래의 회화과가 조소과, 동양화과, 서양화과, 한국화과 등으로 세분되는 경우라든가, 음악대학내에 종래의 기악과가 피아노과, 현악과, 관악과, 타악과로 세분된다든가 또 국악과가 국악기악과, 국악이론과, 국악작곡과, 국악성악과 등으로 세분되는 경우 등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상에서 열거된 바와 같은 대학 학부에서 학과의 분화론은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첫째, 학문 발전 그 자체를 위해서 세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문의 발전은 그 학문이 발전되어 온 기초 학문의 깊은 이해 없이 단지 지엽적인 전문 지식만으로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론적 학문으로서 철학, 수학, 자연과학을

하나로 묶고, 실용적인 학문으로 윤리학, 정치학, 경제학을 묶고, 또 생산적 학문으로는 순수예술, 응용예술, 공학 등으로 묶은 것도 각 학문 영역들이 그 성격에 따라 그 기초적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 학부 1~2학년 때 교양교육과 기초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앞으로의 각각의 전공 학문에 기초를 튼튼히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學科를 세분하게 되면 특수한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할지는 몰라도, 학문의 전반적 맥락에서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게 되고 학문의 폭과 깊이가 더 이상 심화되지 못한다. 대학교육은 단순한 전문가 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아카데미즘에 터해야 한다. 학과의 성격을 너무 좁히고 세분하게 되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나무들이 형성하고 있는 숲 전체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학과를 계속 세분화하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세분할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며, 學科를 특수 전공 영역 또는 교과 수준까지 세분하게 되면 대학 학부 동안에 과연 敎科 科目을 몇 개나 개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된다. 대학 4년간의 140 학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뜻이다. 예상하건대 전공 학과가 지나치게 분화되면 그 학과에 개설되는 교과 과목의 수는 한

정되게 마련이며, 나머지 학점은 각자의 전공과 관계가 적은 다른 학문의 교과 과목을 영등하게 선택 과목의 명목으로 수강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정부의 이제까지의 정책 교과나 이에 준하는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교과 과목으로 조직되어 부족한 학점 수가 자연스럽게 채워질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그러나 학과를 좀더 넓은 폭으로 통합하거나 확대하여 개설하게 되면 전공 학과에 관련된 모든 교과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한 전문가로서 필요한 폭 넓은 전공 지식을 쌓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 몇 개 분야만 전문적으로 이수되고 나머지는 학생의 의사에 따라 계통 없이 이것 저것 무계획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공 학과에 관련된 여러 교과 과목을 先修學科와 후속 과목과를 연계지어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대학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관련 학문 분야와 기초교육을 학부에서 튼튼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대학원이나 그 이상의 전문교육을 위한 준비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학과의 분화보다는 학과의 통합적 조직이 더 바람직하다. 역사적으로 대학의 학과 조직은 학문적 구조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이러한 학과 조직은 주로 학문 탐구와 연구의 목적으로 특별한 의미는 있었으나 그 교육을 받고 장래에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학생에게

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학생의 직업적 배려도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직업 상황에서는 특정의 전문 지식만이 요구되기보다는 다양한 전문 지식이 요청된다. 특정 분야의 연구직을 제외하고는 경영자, 관리자, 감독자로서의 특성이 요구되는 전문 지식은 폭 넓은 지식이며 융통성과 창의성이 요청되는 지식일 것이다. 어차피 특정직의 연구직은 대학원 수준의 고도의 전문교육이 요청될 뿐이다. 대학 졸업자는 단순 기능공처럼 분업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 또는 지도자로서 여러 분야의 협업과 동일 분야의 서로 다른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일에 참여한다. 이때 요구되는 지식은 특수 분야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폭 넓은 지식일 것이다. 축산 학과에서 축산 경영, 축산 가공, 사료 생산, 낙농 방법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폭 넓게 섭렵한 사람이 축산경영학이나 사료생산학에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만을 깊이 있게 탐구한 사람보다는 목장을 더 잘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우는 대기업의 회사로직으로 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경영·회계·인사 관리 등 모든 영역의 폭 넓은 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음악 전문가로서 방송국에 취직할 경우에도 성악·작곡·기악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이 요구될 것이고, 농대를 졸업한 농촌 지도자의 경우에도 농학·농공토목·농공

기계·농화학 등의 다양한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지, 각 분야만의 심도 높은 특수 전문가로서의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특수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분야의 대학원 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학문적 탐구나 특정 연구직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네째, 학과의 성격을 너무 구체화하게 되면 같은 분야의 학문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영역간의 협동적 연구가 어렵게 된다. 학문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탐구 방법들간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함으로써 학문의 상보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직업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의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다학문 분야간 협동 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도 학과내에 다소 성격이 다른 전문 분야를 통합하여 설치함으로써 이들간의 협동적 연구와 상호 작용의 기회를 넓힐 수 있어야 한다. 학과내의 서로 약간씩 성격이 다른 전공 분야들이 서로 담을 쌓고 분화되어 오로지 자기 분야만의 탐구에만 전념하게 된다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학문적 고착성과 독단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이다.

다섯째, 학과의 성격을 지나치게 세분하여 그에 따라 인력을 양성해 놓게 되면 국가 인력 관리 체계에 이상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따라서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의 적체 현상이

나타나 새로운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특수 전문직의 인력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음악대학을 졸업한 수준에서 피아노, 관악, 현악, 타악만이 요구되는 경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들 모두의 지식과 기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피아노만을, 관악만을, 현악만을 전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마다 각 특수 전공자들의 적체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 사법학과, 공법학과, 경기지도과, 삼림경영학과, 사료생산학과, 미생물학과, 생화학과, 임산가공학과, 농화학과, 식물병리학과, 교육심리학과, 불교야동학과 등에서 배출된 전문 인력의 수요가 향후 몇 년 동안 크게 늘어날 전망이 높지 않을 것이다. 또 법학과에서 통합적으로 양성된 법률 전문가가 사법학과나 공법학과에서 양성된 특수 법률 전문가보다 인력 활용면에 있어서 더 원활할 것이다. 사회는 특수 전문직의 일보다도 일반직의 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여섯째, 학과를 세분하게 되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한다. 우선 세분된 학과내에 개설해야 될 교과 과목이 약 100 학점 정도의 학점을 채울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실령 개설한다 했을 때 그토록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

용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수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뒤따른다. 전문적인 교수 인력의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교과 과목을 백화점의 소매상처럼 다양하게 차려 놓는다 하더라도 한 학과내의 두세 명의 교수가 여러 과목을 중복해서 맡게 되므로 오히려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각 학과마다 개설된 교과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실과 교수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가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보다는 큰 단위로 학과가 통합되면 대체로 1~2 학년 만에 개설되는 교양 과목과 기초교육 내용, 그리고 방법론에 관한 교과 과목의 경우는 200~300 명의 대단위 강의가 현대적인 교육공학 적 시설과 자료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3~4 학년 때는 비교적 세분된 지식의 교과 과목이 20~30 명씩의 소단위 강의로 개설될 수 있어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법대학의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일어교육과 등 다양한 학과들을 외국어교육학과로 묶고 그 속에서 영어전공, 독어전공, 불어전공, 일어전공 등으로 한다면 교육 행정, 교육 심리, 교수 방법, 교육 평가, 교사의 자질 등에 관한 공통적인 부분의 교과 과목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은 대단히 클 것이다. 다만 문학적인 면과 언어학적 면에서의 영어, 독어, 불어, 일어 등의 전문 영역의

교과과정이 소단위 수업 형태로 개설했을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되면 학교 시설 및 각종 실험 기자재의 활용이 원만하지 못하다. 각 학과마다 필요한 기자재를 중복적으로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학과 운영의 이력 관계 때문에 시설이나 기자재의 공동 설치 및 공동 구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설과 실험 기자재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시설과 실험 기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학과에서는 그것의 활용이 지극히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학과에서는 그 실험 기자재가 계속 방치되어 자연스럽게 노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학과 분화론 또는 학과 세분론을 일곱 가지 측면에서 비판함으로써 학과 통합론의 입장을 찬성하였다. 이제 학과 통합론에 대한 찬성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의 학부는 이제 20~30년 전과 같이 교육의 최종 단계에 해당되는 교육 기관은 이미 아니다. 또 대학의 학부는 학문 탐구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작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문을 시작하는 대학 학부 동안에는 전공 학과의 학문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을 폭넓게 수렴하고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통합적 학과 조적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 대학생의 정신 발달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직 사고가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창의성과 융통성 등 확산적 사고가 왕성한 때에 전공에 관련된 다양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여 그러한 정신 능력을 더욱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합된 학과내에 다양한 전공 선택의 교과과정을 많이 개설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대학 3~4학년 때는 자기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전공 선택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학과를 분화하고 세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고도 계속해서 특수 전문적인 방면에 연구를 계속할 사람은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탐구·정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연구 분야와 학문 활동 과정에서 계속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체제가 계속 발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 학문 분야는 계속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학부만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업무는 특수 전문 분야의 일이 아니라, 통합적인 능력과 지식이 요구되는 관리자, 감독자, 기획자 등의 주로 산업의 중간 관리자 또는 중간 위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느 특수 분야의 지식과 기능만으로는 한정된 업무밖에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인력 관리에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다. 만일에 특수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산업체마다 연구원과 연구소가 설치되어 그

곳에서 재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에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개설되면 후에 이를 통합하는 데는 대단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목적이 옳은 그릇은 일단 학과가 설치되면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에는 큰 진통이 따르리라 예상되어 이 문제에 관한 학계의 연구와 검토가 신중하게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층 있는 연구의 결과에 터하여 학과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한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인력 손실은 물론 학문의 발전에도 심대히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는 대학 내부가 진통과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대학은 이제 소수 엘리트만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며 학문 탐구의 마지막 교육 기관도 아니다. 그렇다면 특수 전문 분야의 지식과 기술만을 대학 학부 과정에서부터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하며, 현대에는 대학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일진대,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 학부의 목적일 것이며, 그것이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이다. \*